

제27차 REACH 엑스포 4월25일 개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4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화학물질 관련기업 250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REACH 대응 엑스포를 개최한다.

REACH 대응 엑스포는 201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REACH로 불리는 화평법·화관법은 화학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고 화학물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골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세미나에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의 화학물질 관련규제 및 최근동향을 소개하고 화평법·화관법과 REACH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 강연으로 일본 산업환경관리협회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화평법과 일본의 J-REACH를 비교하는 설명을 듣고 공동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규제 전문기업 및 컨설팅기관 등이 참석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생산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학물질 관리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04/25>